

No.55

Japan Weekly Digest

2010. 10. 4 ~ 10. 8

□ 금주의 이슈

- 노벨화학상, 일본인 2명 수상
- 日銀, 4년 3개월만에 제로 금리
- 엔高 82엔대 돌입, 15년 4개월만에 최고수준 기록
- NTT도코모, 삼성 「GALAXY S」 일본 진출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센고쿠 관방장관, 日·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극비협상
- 간 총리, 브뤼셀에서 韓·日 정상회담 개최
- 日·몽골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자원개발 협력기로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희토류 수입규제영향 긴급조사결과 발표
-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
- 도요타, 브레이크 우선작동 기능 표준화 발표
- 도레이, 고기능필름 증산을 위해 韓·日에서 220억엔 투자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급성장하는 의료관광시장 (주간 이코노미스트)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노벨화학상, 일본인 2명 수상

-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6일, 201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리처드 F 헤크 미국 텔라웨어대학 교수(79), 네기시 에이이치 미국 퍼듀대학 교수(75), 스즈키 아키라 일본 홋카이도대학 교수(80)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
-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2종류의 유기합성분야에서 팔라듐(pd) 촉매를 이용한 '스즈키(鈴木) 크로스 커플링 반응'을 개발한 업적
- 스즈키 교수는 **1987년 한국 화학계 공로상 수상**
- 지금까지 일본인 수상자는 모두 18명(의학상 1, 물리학상 7, 화학상 7, 문학상 2, 평화상 1)

○ 일본은행, 추가 금융완화대책 발표. 기준금리 “0~0.1%”로 인하

- 일본은행은 5일,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디플레이션 극복과 엔高 방어를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
- 日銀은 정책 **기준금리 목표를 0.1%에서 0~0.1%로 인하**. 국채나 상업어음(CP), 사채 등 금융자산 매입을 위해 5조엔 규모의 기금도 설치
- 日銀은 「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」는 방침

○ 엔高 82엔대 돌입, 15년 4개월만에 최고수준 기록

- 외환시장에서 6일,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융완화정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뉴욕시장에서 엔·달러 환율이 1달러당 82엔대까지 상승
- 95년 5월이래, 약15년 4개월만에 최고 수준. 美FRB가 11월초 일본은행을 상회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대책을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 이유
- 일본은행의 엔高 방어를 위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

○ 삼성전자 갤럭시S·탭 일본 진출

- NTT도코모와 삼성전자는 5일,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한 스마트 폰 갤럭시 S와 태블릿 PC 갤럭시 탭을 10월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
- 일본에서 출시되는 갤럭시S는 안드로이드 OS 2.1버전으로 출시된 국내 제품과 달리 최신 플랫폼인 2.2버전이 탑재
- 4.0인치 슈퍼 아몰레드화면과 1기가헤르츠(GHz)의 CPU, 5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지원(일본에서 처음으로 '삼성' 로고를 표기)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센고쿠 관방장관, 日·中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리에 협상
 - 아사히신문은 6일, 벨기에 브뤼셀에서 간 총리가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전격적으로 회담하게 된 배경에는 센고쿠 관방장관과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(부총리급) 간의 비밀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
 - 센고쿠 관방장관은 중국과 관계개선을 위해, 중국 인맥을 갖고 있는 호소노 간사장대리(오자와파)를 중국에 급파
 - 호소노 간사장대리는 중국에서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교섭을 통해 ASEM에서 日·中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연출하는데 성공
 - 간 총리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센카쿠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
- 간 총리, 브뤼셀에서 韓·日 정상회담 개최
 - 간 총리는 4일, 브뤼셀 시내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과 회담하고, 양국 관계와 국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
 - 간 총리는「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」고 강조
 - 이 대통령님은「동북아를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될 과제가 많고,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. 두 나라는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」고 언급
- 日·몽골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자원개발협력에 합의
 - 간 총리는 2일, 몽골 바트볼드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몽골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공동 개발기로 합의
 - 희토류의 對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외에서 자원조달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목적
 - * 간담회에는 미쓰비시상사, 미쯔이물산, 스미토모상사 등 사장 6명과 신일본제철 부사장이 배석
 - 일본은 자원탐사 기술을 몽골에 제공하는 대신,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일본에 우선 공급해 줄 것을 요구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희토류 수입규제영향 긴급조사 결과 발표
 - 경제산업성은 5일,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
 - 에너지절약형 가전부품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는 응답기업 66사 가운데 31사가 「중국에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다」고 응답
 - 수출입 화물은 약 30%인 124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
 - 오하타 경산대신은 5일, 기자회견에서 「정보에 의하면 아직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」고 언급하고 중국에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힘
-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지원 등 공동성명 채택
 -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력회의(APEC) 중소기업장관회의가 3일, 기후시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, 환경산업 육성 등을 담은 「공동성명」을 채택한 후 폐막
 - 공동성명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개발과 국제화를 도모하는 글로벌모델 대응, 중소기업의 국제전시회 참가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
 - 의장역을 맡은 오하타 경산대신은 중국대표인 주홍런 공업정보화부 총공정사에게 구속된 일본인 문제를 「빠른 시기에 해결해 주기를 희망 한다」고 요청
- 도요타, 내년부터 브레이크 우선작동 기능 표준화 발표
 - 도요타는 4일, 내년부터 모든 차종에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을 경우,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는 안전기능을 표준화시키겠다고 발표
 - 표준장비는 「브레이크·오버라이드·시스템」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형차종의 84%가 채택하고 있음
 - 사고발생 시, 운전조작을 기록하는「이벤트·데이터·레코더(EDR)」도 표준화할 방침
 - * 도요타는 약540만대의 리콜을 완료
- 도레이, 고기능필름 증산을 위해 韓·日에서 220억엔 투자
 - 도레이는 4일, 약220억 엔을 투자하여 폴리에스테르필름 등 IT제품에 사용되는 고기능필름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
 - 韓·日 양국의 4개 공장에서 2012년 8월까지 박막TV와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고기능필름을 증산할 계획
 - 한국도레이첨단소재는 설비 증설을 통해 12년 1월까지 생산능력을 30% 확대할 계획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급성장하는 의료관광시장” (주간 이코노미스트)

▷ 의료시장의 글로벌화

- 국경을 초월하여 외국병원에서 수신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. 의료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「의료 투어리즘(메디컬·투어리즘)」은 세계 약50개국에서 실시
 - 2008년에는 연간 약600만 명 의료투어리스트가 해외로 출국
- 해외에서 의료관광을 하는 이유
 - 「최첨단 의료기술」과 「좋은 품질의 의료서비스」로 약 70% 환자가 선진국으로 이동
 - 최근에는 의료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환자가 늘고 있음

▷ 환자가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이유

○ 선진국의 의료 사정

- 영국, 캐나다에서는 「대기시간을 해소」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서 진료
- 미국에서는 고용자들이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업원들이 의료비가 낮은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

○ 인터넷 보급 확산

- 특히,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어 지금까지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세계 각국의 의료기관 정보 확보가 용이해 짐
- 의료 투어리스트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술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

○ 적극적인 국가 대응

- 아시아국가에서는 02년부터 외화 획득, 내수확대를 목적으로 의료 투어리즘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(태국, 한국, 싱가포르 등)

▷ 일본의 잠재적 의료시장 규모

○ 일본에서 의료 투어리스트를 수용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한정되어 있음

- 의료 투어리즘시장의 확대와 의료국제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고도 의료기술·설비,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의료 투어리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
-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異文化·多言語에 대한 대응과 부족한 의사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

*출처 : 주간 이코노미스트(2010.9.21)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생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』 일본은행, 10월 2일
*출처:<http://www.boj.or.jp/type/release/teiki/ishiki/ishiki1010.pdf>
- (2) 『국내투자촉진회의 민간위원 긴급 제언』 경제산업성, 10월 5일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01004002/20101004002-2.pdf>
- (3) 『왜 국가전략이 필요한가』 노무라 종합연구소, 10월 5일
*출처: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chitekishisan/2010/pdf/cs20100802.pdf>
- (4) 『2030년을 향한 일본경제발전전략』 노무라 종합연구소, 10월 5일
*출처: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chitekishisan/2010/pdf/cs20100804.pdf>
- (5) 『규제·제고개혁의 경제효과』 내각부, 10월 6일
*출처:<http://www5.cao.go.jp/keizai3/2010/10seisakukadai06-3.pdf>
- (6) 『일본금융정책결정회의』 미즈호 종합연구소, 10월 6일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market-insight/MI101005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10월 4일(월)	○ ASEM정상회담 개최 ○ 금융정책 결정회의(일본은행) ○ 8월 매월 근로통계속보(후생노동성)
10월 5일(화)	○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 기자회견 ○ 확대 경제산업국장회의 개최(경산성) ○ 그린IT Award 2010 경산대신상 발표(경산성)
10월 6일(수)	○ 10월 금융경제월보(일본은행) ○ 9월 자동차별 판매실적 발표(자동차판매연맹)
10월 7일(목)	○ 오카무라 상공회의소 회장 기자회견 ○ 日-美 재계회의 개최(도쿄) ○ 8월 경기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
10월 8일(금)	○ 9월 경기Watcher 조사 발표(재무성) ○ 9월 기업도산건수 발표